

<http://dx.doi.org/10.17703/JCCT.2019.5.2.117>

JCCT 2019-5-15

국내 언론 보도 연구: 북-러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Analysis of Korean News Report: Focusing on N. Korea-Russia Summit

반현

Hyun Ban

요약 본 논문은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열렸던 4월 25일을 중심으로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기사 제목과 사실 내용을 분석하였다. 북러 정상회담은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 평화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이념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한국의 대표 언론지인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을 대상으로 신문 사실과 기사 제목을 분석하였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마틴과 화이트(2005)의 평가어 체계를 근간으로 회담 기간 동안 동일한 사안에 대한 평가어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실에서 동아일보는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감정 평가에 의존하여 기술하고 있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유지한 반면, 한겨레는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감정 평가를 통해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평가는 기사 제목에서도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각 언론사는 사실과 일반기사 제목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언론사를 뉴스소비자들에게 각각이 지향하는 이념적 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주요어 : 한국 신문, 사실, 이념적 입장, 2019 북러 정상회담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ideological preferences of news media outlets by looking at the news coverage of North Korea-Russia summit in April, 2019. The meeting has gained attention in South Korea, China, Japan and America in that the historical meeting will reflect the future direction for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r and the peace in the world. Given this, in particular, a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editorials and headlines of news articles reported in two Korean quality newspapers, DongA Ilbo and Hankyoreh because both are quality newspapers, but are ideologically different. To achieve objectivity and fairness, the same issues dealt with during the summit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in Martin and White (2005)'s Appraisal framework.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in editorials of DongA Ilbo showed a negative stance to the summit by employing the 'attitude' factor, whereas the Hankyoreh was overwhelmingly positive toward the issue, also by employing the 'attitude' factor. The political stance is likely to be in line with those shown in the headlines of news articles from each newspaper. That is, it is clear that each news outlet shows its ideological stances to news consumers through linguistic expressions, in that both editorials and the headlines of news articles express their political preferences to the summit by means of linguistic appraisals.

Key words : Korean newspapers, editorials, political stances, 2019 North Korea-Russia summit

정회원,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접수일: 2019년 2월 19일, 수정완료일: 2019년 3월 17일
게재확정일: 2019년 4월 9일

Received: 19 February, 2019 / Revised: 17 March, 2019
Accepted: 9 April, 2019
*Corresponding Author: jamesban@naver.com
Dept. Mass Communi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 서론

우리는 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 매체를 통하여 특정 이슈들에 대한 담론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 소비는 담론 소비자가 재설정된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담론생산자가 담론 주체가 되어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된다면 담론 소비자들은 편향된 시선으로 담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미디어 담론의 중요성을 지시하는 바이기도 하다. 미디어는 사회적 현실은 보여주지만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담론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디어가 주요 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대중의 기준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결정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Herman & Chomsky, 2002)[1]. 미디어의 이러한 파급력은 담론분석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미디어 담론을 생산하는 담론생산자로서 언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1인 미디어를 포함하여 각종 소셜 미디어가 우후죽순 많은 담론을 생산해내고 있지만, 가장 대중적 흡수성이 높고, 시사성, 공공성뿐만 아니라, 정보전달 기능을 갖춘 매체는 언론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문 사설은 담론생산자의 사고와 논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척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van Diky, 1996)[2].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관한 국내 언론지 보도 성향 및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을 대상으로 일반기사의 경우에는 제목(headlines), 그리고 신문 사설을 평가어 체계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뉴스와 사회언어학

뉴스 담론과 사회언어학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다. 뉴스 담론은 사건이나 이슈의 기술 외에 독자들의 사고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연계성을 가지고, 그러한 뉴스 생산수단은 언어라는 점에서 학제 간의 융합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뉴스 담론의 입장은 ‘선택’과 ‘표현’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념적 관점이 각기 다른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난다(Fowler, 1991)[3]. 이것은 특정 사건이 어떤 언어적 자원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어떤 시각

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뉴스소비자들의 판단과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신문 사설이나 보도와 같은 뉴스 텍스트를 활용한 사회언어학적 연구를 위한 분석 틀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영어권에서는 평가어 체계(appraisal theory)를 분석 틀로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리와 스티븐슨(2013)은 중국 사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보도한 호주 신문과 중국신문을 분석하여 이런 분석이 특정 텍스트에서의 언어 간 기술 방식의 차이를 연구하는데 어떻게 일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5]. 선거도 이념적 차이와 정치적 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관행과 언어 간의 상호관계를 보여준다(Haney & Tator, 2002[6]; Noh & Ban, 2017[7]).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국제적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주제인 만큼 이에 대한 보도분석을 평가어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여러 평가어 틀 중에서 본 논문에서 도입한 마틴과 화이트(2005)의 평가어 체계는 세 개의 상위개념을 가지고, 상위개념들 또한 각각의 하위개념들을 가진다. 상위개념들은 태도(attitude), 개입(engagement), 강도(gradation)이다. 태도는 화자나 저자가 사물, 사람, 사건, 행동 등에 대해 가지는 생각을 보여주는 표현을 지칭한다. 반면 개입(engagement)은 제시된 상황에 대한 화자나 저자의 입장을, 그리고 강도(gradation)는 태도의 강도를 높이거나 낮추는데 동원되는 언어학적 표현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척도이자 첫 번째 요소는 태도이다. 태도는 3가지 하위개념인 감정평가(affect), 행위평가(judgment), 그리고 사물평가를 가진다. ‘감정평가’란 사람, 사물, 현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행위평가’는 사회문화에서 받아들여지는 보편적 행위들을 기준으로 각각을 정상적(normality), 충실성(tenacity), 그리고 능력(capacity)으로 평가를 한다. 예를 들어, 부산일보 1월 18일자 (2017)[8]에 보도된 내용 중에서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 발인에서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에서 ‘오열’은 감정평가의 명사에 해당한다(Ban and Noh, 2018)[9].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의 경우에는 진실성(veracity) 혹은 윤리성(propriety)에 기준을 두어 판단한다. 사물평가도 부정/긍정적 반응, 구성구조에 대한 평가, 혹은 가치 평가 등으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은 빨리 진

화됐지만 피해는 매우 크다.’(한겨레, 4월 26일, 2019)[10]에서 ‘신속한’ 형용사는 관리(사물)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 할 수 있지만, ‘피해는 매우 크다’는 피해(사물)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평가요소는 ‘강도’(gradation)는 세기와 조절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이러한 언어적 태도는 주로 부사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위 문장에서 ‘피해는 매우 크다’에서 ‘매우’(부사)는 사물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어휘가 된다. 마지막으로 개입(engagement)은 공간축소와 공간확대로 나누어지는데 공간축소란 상대방의 의견이나 사고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며 공간확대는 판단을 유도하는 등 다른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의사 표현을 의미한다.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파이널설뉴스, 4월 2일)에서 ‘묵묵부답’이란 판단을 유도하는 언어적 표현에 속한다, 반면에 ‘복당설에 대한 질문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히며 복당설을 일축했으며“(서울경제 4월 11일, 2019)에서 ‘일축’은 다른 부정이나 가능성을 배제하는 표현으로 독자들의 개입을 축소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이념적 차이를 동아일보와 한겨레 두 개의 사설들, 즉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관한 사설들을 선택하여 ‘태도’에 중점을 두고 질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2.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 뉴스 보도

2019년 4월 25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작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지난 1년 동안 한반도 정세를 두고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였다. 그동안 북미 회담, 남북회담, 그리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왔다. 이번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도 그에 대한 연장 선상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짧은 정상회담이었지만, 러시아는 6자 회담의 일원이라는 점,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번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두 나라 간의 회담은 의미가 있었다. 러시아는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북한의 비핵화에 찬성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이 앞으로의

행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한국정부는 북러 회담이 한국의 평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와 비슷한 시기에 도널드 트럼프와 일본의 아베 총리가 회동했다. 따라서 과거 6자회담의 당사국이었던 6개 국가가 한반도 이슈 및 정치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주요 언론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이념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언론들을 선정하여 북한의 김정인과 러시아의 푸틴 정상회담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주제 및 방향

국내 전국일간신문 발행 및 유료부수 인증결과에 따르면 발행 부수 및 구독률 기준으로, 국내 상위 5위에 포함된 신문사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이다(한국ABC협회, 2017)[11]. 본 연구는 정치적 성향과 해당 이슈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여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신문 사설은 한 사회의 관점을 보여주는 뉴스 담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사회, 정치, 문화적 관행 분석의 틀로 적극적으로 활용됐다(반, 2018)[12].

연구대상 수집방법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 KINDS)에 접속하여 ‘김정은, 푸틴 회담’ 혹은 ‘북, 러 정상회담’으로 검색어를 입력하였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열린 시점인 2019년 4월 25일을 중심으로 전후 1일, 즉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의 분석 기간을 설정한 후, 해당 기간에 실린 모든 기사와 사설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관련 사안에 관한 일반기사로 조선일보는 32건, 동아일보는 19건, 한겨레 17건, 경향 26건을 각각 게재했다. 그리고 4개 신문사가 3일간 분석 기간 발행한 사설은 각각 1개씩이었다. 특히 의견기사(editorials) 중에서 칼럼, 사설 등 전체 내용을 검토한 후, 북러 정상회담과 관계가 없는 칼럼, 사설들은 제외했다.

먼저 가장 상식적으로 사설의 입장 차이가 큰 신문 사설 2개를 선정했다.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푸틴까지 끼어든 북핵 줄다리기, 체제 또 다른 구멍 생기나”(2019년 4월 26일)이다[12]. 사설 본문의 주요 평가어 지표는 다음 도표와 같다.

표 1. 동아일보 사실 본문 내용 평가어 분류
Table. 1 The Classification based on Appraisal Framework (DongA Ilbo)

태도	감정	부정적 궁지에 몰린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조급증을 낼 것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피할 뒷구멍을 열어 줄 '나 홀로 기념행사' (미국과는) 엇박자를 내고 (일본과는)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개입
	확대	
	축소	그런데

본 논문에서 도입한 평가어 체계에 따르면, 동아일보의 사실은 태도와 개입이라는 평가어, 그리고 모두 부정적 평가어를 활용한 것임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사실에 실린 해당 내용 중 일부이다.

- (1) a. 남북관계에 조급증을 낼 것이 아니라...
- b. 미국과는 엇박자를 내고 일본과는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간다.
- b. 러시아까지 제제를 피할 뒷구멍을 열어준 가능성에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태도의 상위 개념에서 동아일보 사실은 사람, 사물, 행위에 대한 평가인 감정적인 평가어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궁지에 몰린’ ‘조급증을 낼 것’은 사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평가어에 해당한다면, ‘국제관계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미국과는 엇박자를 내고,’ ‘일본과는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한국정부의 대미, 대일관계 행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동아일보 사실은 뉴스소비자들에게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한겨레신문의 사실을 살펴보면 ‘김정은-푸틴 회담, ‘한반도 비핵화’ 도움 주길’(2019년 4월 25자)[13] 제목에서 제시된 것처럼 한겨레신문의 사실은 동아일보와는 다른 관점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겨레신문도 동아일보 사실처럼, 태도의 상위개념을 가장 많이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정부에 대한 바람과 기대를 전달하는 언어적 자원을 통해 한국정부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전달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외에도 한겨레신문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 확대를 이용함으로써 뉴스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표 2. 한겨레신문 사실 본문 내용 평가어 분류
Table. 2 The Classification based on Appraisal Framework (Hankyoreh)

태도	감정	긍정적 기대한다 (2회) (11) 시의적절한 도움을 주는 (12) 하길 바란다. (2) 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3) 협상 재개에 도움을 주고 (4) 복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6) 가장 중요한 의제로 (8)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 (9)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개입
	확대	(5)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축소	(7) 그렇지만

다음은 사실에 실린 일부 내용이다.

- (2) a.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b. 국면 복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c.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여정에 시의적절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
- d. 이번 회담이 비핵화 협상 재개에 도움을 주고

위에 제시한 것처럼,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에서 한겨레신문 사실은 ‘기여하기를 바란다,’ ‘시의적절한 도움을 주는 역할을 바란다,’ ‘협상 재개에 도움을 주고,’와 같은 언어적 표현을 통해, 이번 회담이 앞으로의 한반도 비핵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는 희망, 즉 긍정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언어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러시아의 개입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개입확대 표현을 활용하여 이 의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는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각각의 사실을 평가어 체계(Martin & White, 2005)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사실은 평가어 중에서도 태도를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을 이용하여 전자는 이번 북-러시아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이며 동시에 현 정부의 외교

정책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후자는 회답이 한반도 비핵화의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감정을 긍정적 평가어로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해당 언론사의 입관된 정치적 성향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뉴스 기사의 제목을 평가어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은 그 분석 결과이다. 위에 제시된 것처럼, 일반기사와 사설의 내용분석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아일보는 사설과 일반기사 모두 현재의 외교 상황에 대한 부정적 감정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반면 한겨레신문은 사설과 일반기사 모두 현 상황에 대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기대를 보여주는 평가어를 사용했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기사와 사설을 통한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과 성향을 대변한다고 결론지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언론사가 뉴스보도와 사설을 통해서 이념적 성향을 표출한다는 프레이밍 이론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 동아일보 기사의 제목 (동아일보)

Table. 3 The Headlines of News Articles (DongA Ilb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방러 일정 단축 ...오늘 오후 평양 귀환길 올라 - 北러·中러·美日 연쇄 정상회담...한국은 '샌드위치 신세'? - 美 대북제재 <u>흔드는</u> 김정은-푸틴의 악수 - 김정은-푸틴, 정상회담서 러시아산 무기 도입도 논의할까 - 회담장 안팎 북한인들 분주... "준비 잘되나" 문자 <u>인상 쓴 채 돌아서</u>
--

동아일보의 19개 기사 중에서 5개의 기사 제목 중에는 이번 북한 러시아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평가어들이 사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방러단축'은 '정상회담'이라는 사물에 대한 평가로 회답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평가에 해당된다. '러시아 무기도입'은 행위에 대한 평가, 즉, 사회적 관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회담의 본질, 즉, 윤리성을 위배하는 평가어에 해당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 평화라고 천명한 만큼 일반적 경제협력에 아닌 러시아산 무기 도입은 평화를 해치는 이미지를 동반하기 때문에 비도덕성을 강조하는 언어표현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외에도 '인상 쓴 채 돌아서'는 부정적인 감정 평가에 해당되며,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도 사물에 해당하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동반한다. 즉, 이 같은 기사 제목들의 언어적 표현들은 사실 내용처럼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한겨레신문의 기사의 제목 (한겨레신문)

Table. 4 The Headlines of News Articles (Hankyore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과 안보리, 국제관계 기준 지킬 수 있도록 협력" - 김정은은 "<u>한반도 평화</u>, 미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 - 푸틴 "북러, 비핵화 입장 유사"...미국에 "<u>건설적 대화</u>" 촉구 - 5시간 동안 함께 한 김정은-푸틴...<u>단독회담만 2시간 넘게</u> - 배석자 보니...김정은은 <u>비핵화 집중</u>, 푸틴은 경험 강조 - 푸틴, 6자회담 재개 꺼낸 이유? - 문 대통령 "<u>가급적 빨리 김정은 위원장 만날 것</u>"

한겨레신문 17개의 기사 중에서 7개의 기사 제목들에는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드러내는 평가어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국제관계 기준 지킬 수 있도록 협조', '한반도 평화,'건설적', '비핵화 집중' 이러한 사물 평가어들은 한반도 비핵화가 이번 회담의 핵심이고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북한 모두 한마음이라는 긍정적 평가어들에 해당이 된다. 즉, 이것은 동아일보에서처럼 한겨레신문도 사설 내용과 기사 제목이 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어라는 큰 틀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대립적 감정은 유사한 주제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 (3) a. 김정은-푸틴, 정상회담서 러시아산 무기도입도 논의할까 (동아일보)
- b. 배석자 보니.. 김정은은 비핵화집중, 푸틴은 경험강조 (한겨레신문)
- (4) a. 北러·中러·美日 연쇄 정상회담...한국은 '샌드위치 신세'? (동아일보)
- b. 문 대통령 "가급적 빨리 김정은 위원장 만날 것"

(3)은 푸틴과 김정은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3a)처럼 동아일보는 러시아의 입장을 '무기도입', 즉 회담의 본질을 위배하는 것으로 이는 행위에 대한 평가에서 '윤리성'을 위배하는 언어적 표현이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3b)처럼 한겨레신문은 이를 '경제협력'이라고 대변함으로써 행위의 '정상성'을 강조하고 있다. (4a)에서 드러나 있는 것처럼 동아일보는 외교 관계에서 한국은 영향력 없는 국가라는 부정적 태도를 '샌드위치 신세'로 보여주고 있지만, 한겨레신문은 4(b)처럼 '가급적 빨리, 만날 것'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한국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어를 사용했으며, 특히 ‘가급적’ ‘빨리’는 ‘세기’를 보여주는 강조어에 해당이 된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개인에 대한 감정적 평가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라는 이슈를 통해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일반기사와 사설을 평가어 체계를 통해 비교분석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짧은 일정의 정상회담이었지만, 이념적 지향점이 다른 두 언론사는 분명한 이념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 한겨레신문은 회담의 중점을 국제사회 및 한반도 평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아일보는 회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주류인 평가어들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가어라는 언어적 자원을 통해 언론사들이 각각 자신들의 사건에 대한 입장, 더불어 이념적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러 정상회담이라는 특정된 주제, 그리고 북한과 회담을 했던 미국과 비교해 볼 때 러시아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인지 비교적 분석 자료가 많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지금 국제 정세는 과거 6차 회담의 주요국의 정상들이 회동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한반도와 국제 평화라는 주제 아래 국가 간의 정상회담, 다자간 국가들의 협상들로 확장 시킨다면 각 언론사의 이념적 차이와 평가어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References

[1] Herman, S. & Chomsky, N. Manufacturing consent: The political economy of mass media. (2nd ed.) New York: Patheon Books, 2002.
 [2] van Dijk, T.A. "Discourse, Power and Access", in C.R. Caldas-Coulthard and M. Coulthard (eds.) Texts and Practices: Readings i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pp. 84 - 104. London: Routledge, 1996.
 [3] Fowler, R. Language in the News: Discourse

and Ideology in the Press, London, Routledge, 1991.
 [4] Martin, J. & White, P. The Language of Evaluation: Appraisal in English,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5] Liu, L. & Stevenson, M. D. "A cross-cultural analysis of stance in disaster news reports," Australian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Vol. 36 No. 2, 2013.
 [6] Haney, F. & Tator, C.. Discourse of domination: racial bias in the Canadian English-language pres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2.
 [7] Noh, B. K. & Ban, H. "Ideological Discrepancies in News Media: Focusing o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3 No, 4, 2017.
 [8] Cho, S. H. "Milyang in Sorrow. The Miserable believed Family." Busan Ilbo, Jan. 18, 2017.
 [9] Ban, H. & Noh, B. K. "The Role of Evaluative Language in News Translation: Focusing on Soft and Hard New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 6 No, 2, 2018.
 [10] [이 순간] [This moment] The Scenery in Big Fire at Gangwon through Drone (2019년 4월 26일자, Hankyoreh)
 [11] Korea Audit Bureau of Certification Report. URL: <http://www.kabc.or.kr/about/notices/100000002601>.
 [12] Ban, H. "The study of political stances based on editorials of Korean newspaper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4 No, 3, 2018.
 [13] A Tug of Nuclear War with Putin, Another Crack in the Sanction towards North Korea? (2019년 4월 26일자, DongA Ilbo)
 [14] The Summit Between Kim and Putin, Hope to Give Help to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r (2019년 4월 25일자, Hankyoreh)